

## 부활시기의 풍습

주님 부활 대축일과 이어지는 50일간의 부활 시기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가장 큰 축제이며 이에 따른 다양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나누고 기념하는지 주요한 풍습들과 그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목국 기획연구팀

구분	의미	유래
<b>부활달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상징</li> <li>• 껍질은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머무르셨던 바위 무덤을 상징하고 흰자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노른자는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래에 관한 다양한 전설이 있는데 10세기 이집트 그리스도교인 사이 풍습이 발견됨</li> <li>• 선물로 나눠 받는 것은 17세기 수도원에서 예쁘게 채색한 달걀을 서로 나누는 풍습에서 시작되어 널리 전파되었음</li> </ul>
<b>토끼, 양 모양 과자, 초콜릿</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양 모양의 과자나 초콜릿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요한 1,29)이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이때 부활의 깃발이 함께 그려져 있음</li> <li>• 이교 문화 안에서 풍요로움을 상징했던 토끼는 교회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세 시대 신자들은 양, 닭, 토끼 등 짐승 모양의 빵과 과자를 만들어 부활 음식과 함께 축복을 받고 나누어 가짐</li> <li>• 토끼와 관련된 지금의 부활절 풍습은 15~16세기 독일에서 유래되었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풍습을 이어가고 있음</li> </ul>
<b>엠마오 소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엠마오의 두 제자(루카 24,13-29)를 연상하게 하는 소풍으로 부활 팔일 축제 내 월요일에 기도와 성가를 하면서 가까운 산야를 찾아가는 영성적인 소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남부에 아직도 남아있는 풍습</li> <li>• 우리나라의 경우, 본당 또는 수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적인 쉼을 위한 소풍을 다니고 있음</li> </ul>
<b>부활카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탄 카드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기쁨을 주고받고자 부활에 걸맞은 인사말을 상징들과 함께 주고받는 카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여러 다양한 나라에 전파되었음</li> </ul>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이 말 안에는 기쁨과 희망의 선포뿐 아니라, 책임과 사명에 대한 선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케이크나 부활 달걀을 나눠 먹고 파티를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족 파티이기 때문에 좋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 축제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사명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 일반알현(2018.3.28.) 중에